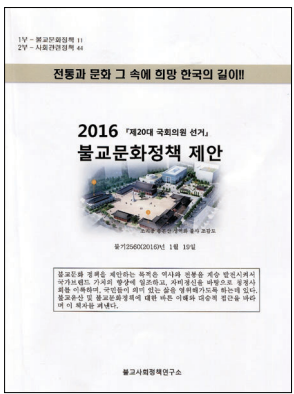


불교사회정책연, 국회에 '정책 제안'



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출을 앞둔 국회에 대해 불교문화 및 사회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범응, 이하 불사정)는 1월 19일 '2016 불교문화정책 제안집'을 공식 발간하고 정부·여당 및 야당 정책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제안 내용은 △불교문화 관련- '불교관련 법령의 일제 정비' 외 15개, △사회관련- '통일정책' 외 8개로 총 25개 내용을 담고 있다. 범응 소장은 "국가유산인 불교문화유산들이 몰이해와 무관심, 국도개발 우선 정책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및 예산배정에 있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응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불교 법령 정비위 발족 주문 총 25개 개선안 담아

불사정이 제안한 주요 불교문화정책은 △불교관련 법령의 일제 정비 △중요 불교문화재에 대한 가치평가 제 실시 △조계사·봉은사의 국가적 가치 인식 △'불교학 중앙연구원(가칭)' 설립 △평창동계올림픽 '자연명상마을' 지원 △전통사찰과 주변의 환경보호 법제화 등이다. 특히 '불교관련 법령의 일제 정비'는 불교관련 법령 중 독소조항이나 불이익, 애매모호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불사정은 △사찰 증개축 보수의 사실상 불가 △비지정 문화재 및 폐사지 등 불교문화유산 관리 소홀 등 문제들을 지적하며, 국회·정부·조계종 인사로 구성된 '불교관련 법령 정비위원회(가칭)' 발족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전통사찰 증축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사찰 건폐율을 완화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은 조계종이 정부 측에 줄곧 요청해왔던 사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박아름 기자**

最古 금속활자 '직지' 638년만에 복원되다

청주고인쇄박물관, 19일 복원품 공개 발표

〈백운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다. 1377년 고려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는 구텐베르크의 성서(1455년)보다 78년이나 앞선다. 〈직지〉는 이 같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고려시대 과학기술의 요체인 〈직지〉의 활자가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1월 19일 금속활자주조전수관에서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를 공개했다. 완성된 직지 금속활자는 직지 상·하권 글자 3만 여자다. 복원 작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인 임인호(52)금속활자장이 맡았다. 그는 직지가 만들어질 당시 널리 쓰였던 밀랍주조법으로 직지를 찍은 활자를 재현해냈다. 밀랍주조법은 벌집의 찌꺼기를 가열해 얻은 밀랍에 글자본을 붙여 글자를

새긴다. 이어 흙으로 감싸 주형을 만들고 밀랍을 녹여낸 공간에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고려 말 간행된 직지는 애초 다량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하권 1권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직지 상·하권 3만여 자 되살려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복원 맡아 옛 밀랍주조법으로 제작해 눈길 9월 '직지코리아' 축제 연계 전시 그래서 원본이 없는 직지 상권의 활자 복원은 직지 이듬해 간행된 목판본 직지의 내용을 참고했다. 글자체는 직지와 같은 활자로 청주 흥덕사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진 '자비도량 참법집해' 번각본 등에서 집자(集字)했다. 여기에도 없는 글자는 직지 하권의



청주고인쇄박물관은 1월 19일 금속활자주조전수관에서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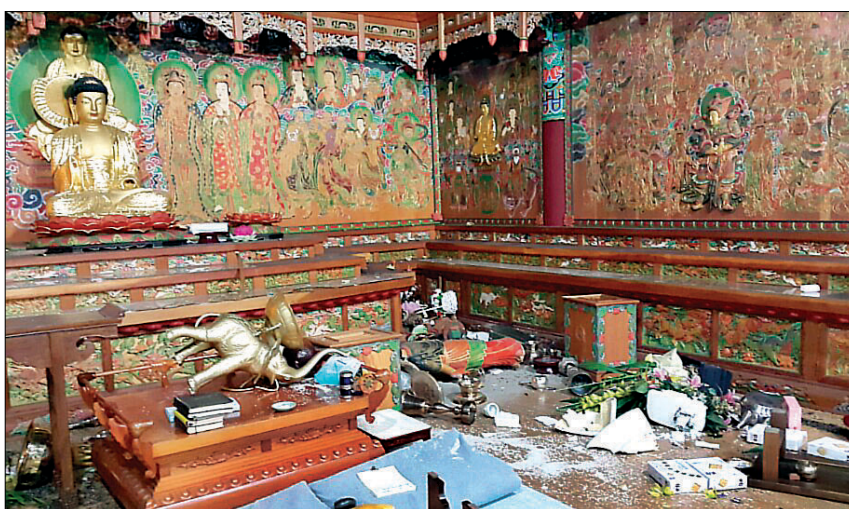
글씨에서 하나하나 획을 따다가 조합하기도 했다. 복원 사업에는 5년이 걸렸다. 청주시는 총 18억 1,000만원을 투입해 2011년부터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사업'을 벌였다. 청주시는 고인쇄 보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시대 활자복원 사업을 펼쳐 계미자 등 45종의 활자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꾸려 직지 복원 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이번에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를 오는 9월 개최하는 '직지 코리아 축제'에서 특별 전시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복원된 〈직지〉 금속활자는 한국 금속활자인쇄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관광자원으로 청주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9월 열리는 '직지코리아' 축제에 〈직지〉 원본을 전시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지난해 11월 청주시 관계자들은 직접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해 〈직지〉 대여를 요구하는 시장의 서한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2013년 4월에도 청주시 관계자들이 프랑스를 방문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주시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프랑스가 부정적인 것은 직지가 외규장각 도서와 달리 약탈문화재가 아닌데도 직지 전시를 계기로 반환운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또 다시 '훼불'... 개신교인 '각목 난동'

1월 17일 김천 개운사서 60대 남성이 불단 훼손 진원 스님 "재발 위험" 우려



1월 17일 개신교 신자라고 밝힌 60대 남성에 의해 훼손된 개운사 불당.

김천 개운사에서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개신교 신자라 밝힌 60대 남성은 불상을 비롯해 향로, 촛불, 목탁 등 법구를 파손했다. A(남·64)씨는 1월 17일 밤 10시 30분 경 경북 김천 개운사(주지 진원) 법당에 난입, 불단 위로 올라가 각목을 휘두르며 불상 및 법구를 파손했다. A씨는 개운사 침입 전 인근 성당서도 성모 마리아상 2개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지 진원 스님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5~7분 만에 각목으로 범당 전체를 파손시켰다"면서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다. 나와 종무원이 발견하자 도망가려하지도 않았다. 순순히 밖으로 따라 나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스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진원 스님을 가르키며 "마귀"라고 욕박지르고, "불교·천주교는 미신"이라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원 스님은 "A씨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면서 "개인의 신념으로 한 훼불행위라 재발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

다. A씨는 난동 직후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체포돼 김천경찰서로 인계됐다. 김천경찰서 형사2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19일 저녁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BC 사업 4년 성과·전망 논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20일 세미나 개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이 추진하고 있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학술원은 1월 2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집성팀에서는 한국불교의 기록물들을 수색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선별하고 중요성과 시급성의 우선 순위로 조사·집성해 왔다. 그간 출장 조사한 기록물의 소장처는 23개소, 조사 문헌의 개체 수는 6,077건이며, 집성을 위해 촬영한 분량은 매수로 194,749장이다. 연구팀은 번역 출판본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참여 연구원은 262명으로 이중 역주에 79명, 증의에 73명, 해제에 64명이 참여했다. 또한 2007년 4월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발족한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단'의 사업을 계승해 현재는



불교학술원은 1월 2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체 분량의 60%까지 역주하였다. 이밖에 2013년부터 3년 동안 문화재청 중요 국가문화재 국역사업도 수행하기도 했다.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은 "ABC 사업은 불교 기록문화유산을 수집·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록물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불교학의 정체성을 재검정하는 작업"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불교 기록문화유산을 유포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깨달음으로 이끄는 대장경 속 한마디

글 김형중 | 그림 허희태 | 신국판 변형 | 248쪽 | 값 15,000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인가?
방대한 대장경 속에서 가려 뽑은 명구에 알기 쉬운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불법의 정수를 맛볼 수 있게 이끌어준다. 명구마다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강렬한 시각적 메시지를 주는 허희태 작가의 이모그라피(그림글씨)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불법의 정수를 담은 최고의 논서!

대지도론 (전5권)

용수 저, 구마라집 漢譯, 석법성 韓譯
전5권(총 4,000여쪽) | 신국판 양장
세트가 270,000원

용수보살의 불교대백과사전!
반야사상을 총괄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필수 길잡이!
신수대장경과 중국 고간본을 대조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역작!

2월 초 출간, 사전 주문 예약 중! **300질 한정 판매!**

① 270,000원 → 243,000원 / 예약금 100,000원
② 교감본 원문 아래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담은 고용량 USB 증정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계좌번호: 농협 029-02-223253 | 예금주: 김시열